

월간 증 현

'80 6월호



고난과 성도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족장들의 생활에서부터 비롯하여 애굽에서의 생활, 40년간의 광야여정,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거쳐 그 이후의 모든 역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을 거듭하면서 역사의 맥을 이어 왔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역행하였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어 성숙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고난의 수렁을 행진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난의 수렁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다는 사실이다. 고난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자세는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하나님의 유기(遺棄)나 저주의 표(表)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에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은 고난의 채찍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요, 이스라엘을 더 연단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고난의 길로 몰아 넣으신 것도 이스라엘을 보다 성숙한 자기 백성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를 느꼈고,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었으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친근히 했던 것이다.

나는 국민학교 입학 전까지 남달리 고집이 세서 어머니께 자주 매를 맞곤 했었다.

하루는 엉뚱한 짓을 해서 소나무 장작개비로 어머니께 실컷 매를 맞고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울다가 지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

다. 그런데 잠결에 내 얼굴에 뜨거운 것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눈을 떠보니 그것은 자식을 때리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고 계시는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택한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감히 어머니의 사랑과 비길 수 있으리요!

6·25 30주년을 맞이하는 한 민족도 고난의 민족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일목지개 하고, 민족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 수난사들이 많이 있다. 현재도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윤리, 종교 등 여러면에서 우리 민족은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국제적으로도, 우리 민족은 세차게 몰아치는 국제정세의 비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잔불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 이렇듯 고난 속에 있는 한 민족은, 특히 우리 성도들은 민족의 수난사를 더듬을 때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직시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나라와 이웃과 민족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범한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인지? 아니면 이 민족을 당신의 그릇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이 두가지 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도 가져야 한다. 죄값으로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은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교회와 자신을 위하여 예레미야처럼 울어야 하며, 연단을 위한 고난이 왔을 때는 읊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 보면서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그 고난을 순종해야 할 것이다. 고난의 채찍이 아프기는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이기 때문에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 (미 6:9하)해야 할 것이다.

성도는 난리의 소문이 퍼질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난리의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목격해야 하고,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깊숙히 들어가야 되며, 고난의 매가 아플수록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감지해야 하며, 고난의 수렁이 깊을수록 소망의 봉우리에 높이 서야 하며, 고난의 바람이 차가울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 8권 제 6호

통권 78호

— 6월호 차례 —

월간 충현

권 두 언 고난과 성도	주 간 · 2
이달의말씀 환난을 이기는 길	김장인 · 4
지 상 특 감 환난에 처한 성도의 자세	김명혁 · 6

특집/환난가운데서의 성도의 자세

· 구약시대	김석원 · 9
· 중세 · 종교개혁시대	홍치모 · 16
· 한국초대교회와 일제시대	안석렬 · 20
· 6 · 25동란 전후시대	이찬영 · 18

교 계 소 식 월간교계뉴스	편집실 · 23
편집실칼럼 한국교회에 요나가 요구되는 시대	오태웅 · 24
찬송가감상 예수의 사랑함과	김하진 · 24
책 소 개 세계기독교회사	장영자 · 25
도 서 점 보 5월중에들어 온 도서	도서실 · 25
선교지소식 애굽복음주의 교회와 나일 대회	이준교 · 26
월 교 월 보 선교지소식 · 기도제목	해외복음선교회 · 28
구 역 소 식 5월중 새 교우 · 결혼 · 별세 명단	편집실 · 30
교 회 소 식	편집실 · 32
답 한 다 택자도 버림 받을 수 있나?	이승근 · 35
6 월의행사	편집실 · 34
편집하고 나서	편집실 · 34
표지설명 / 6월은 충동원의 달로 지키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온 교인 이 전도에 힘썼다. 각 부별로 나간 노방전도, 고등부학생의 노방전도 모습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기도자들의 헌공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길

〈요한복음 / 16 : 25 - 33〉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인생이 환난을 당하는 까닭이 무엇이며, 환난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환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같은 환난을 혹 당하게 될 때에는 풍랑을 잘 이용하면 성공의 길이 빠른 것처럼 도리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당하는 환난, 성도가 당하는 환난에는 어떠한 환난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인생이 당하는 환난들

1) 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하여 병이 들기 쉽습니다. 먹을 것을 조금만 못 먹어도 병이 듭니다. 못 먹어 병들고 더 먹어 병드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듯 몸에 병이 든다거나 사고로 인해 몸의 한 부분이 이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환난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2) 역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도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들이 모략 증상을 하여 넘어뜨리고 밟아 버리려고 할 때에 당하는 그 괴로움은 큰 환난 중에 하나입니다.

3) 가난의 어려움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어려움도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양심을 팔

아 먹고 나아가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4) 실패의 어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며 계획도 세웁니다. 그러나 자기가 계획한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취직시험이나 진학시험에 낙방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하였던 바가 실패로 끝나게 되면 사람들은 낙심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이나 계획에 대한 실패도 환난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5) 전쟁의 환난입니다.

전쟁은 국가적으로 겪는 환난이지만 개인적으로도 가장 무섭고 큰 환난입니다.

전쟁의 환난은 앞서 말한 모든 환난들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난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몸이 불구가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가족을 잃게 됩니다. 모든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의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나 깨나 정신 차려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2. 환난을 당하는 이유

1) 죄를 범하면 반드시 환난을 당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달라 붙어 장난질을 치게 됩니다. 마귀는 하고 싶은대로 꿀탕을 먹고 괴롭힙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환난이 오고 권세가 아무리 높고 당당하여도 환난이 따릅니다.

2) 진리에 대하여 거스리며 악하여 지면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업수이 여기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거스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나 장로를 경히 여기고 거스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스려 반역하는 일은 가장 악하고 큰 죄악으로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환난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3) 음란한 자는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음란죄는 먼저 자신의 인격이 파괴됩니다. 다음은 상대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 되며 한 가정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 깊은 바다속에 파선을 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한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나라의 질서가 파괴되고 종래는 한 나라가 망할 수 밖에 없는 중궁에 이르게 됩니다.

4) 의인이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환난들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므로 자신들의 죄값으로 당하는 환난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이 당하는 핍박입니다. 허물이 없기 때문에 허물이 많은 자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말장아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말은 책임에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함을 받습니다.

착하고 의로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악한 무리들이 핍박을 합니다.

3. 환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취할 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낙심이나 원망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환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근원을 분명히 알며 또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결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여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과 시험의 환난이 밋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의 값으로 인한 심판의 환난이 닥쳐옵니다.

세상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꺼꾸러지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2)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회개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이 게을러서 책임을 다 못한 것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명이나 권세나 권위를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색이 냄새를 풍기면서도 권위와 위엄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미명 아래 자신의 고집을 관철시켜 나가는 악독한 종교 모리배들은 회개하여야 합니다.

3)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도록 힘씁니다. 썩어질 자신의 몸뚱어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불 타 없어질 돈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를 에워싸던 환난은 안개가 걷히듯 사라지고 찬란한 영광의 햇빛이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영혼의 기쁨이 옵니다.

4) 자신의 책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받은 바 은사가 다르고 책임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나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할 때에 무서워하거나,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양심을 던져 버리고 원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생은 약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높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더럽게 살다가 지옥가져 말고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천국에 가는 자가 됩시다.

환난 가운데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환난을 통해 더 큰 복을 누리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에 처한 성도들의 자세

김 명 혁 목사

(총회신학대학 부교수)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어 있다.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해 이리저리 유리하기도 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숨어다니기도 했다. 시편 가운데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애절한 기도가 무수히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시56:1,8).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불리울 정도로 무수한 국가적 시련과 환난이 계속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슬프다 이 성이여.....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함이여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애 1:1,3).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하여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겔 7:26,27).

예수님도 12제자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 가운데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요16:33)고 하시면서 환난의 불가피성을 강조해서 말씀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요15:20).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 자신이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성도들을 권면하는 편지 가운데서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 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벧전4:12)고 하면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벧전4:16)고 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한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며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밖에 끌어 내친”일도 있었다.(행 14:9).

바울은 성도들을 권면하는 편지 가운데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었다”고(고후 1:8,9) 고백하며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의 불가피성을 지적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행 14:22)고 말하며 고난의 필연성을 강조해서 말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는 환난이나 역경을 피해가는 세상도피적인 종교도 아니고 고난을 제거하고 대신 장미빛 인생과 행복을 약속해 주는 행복의 종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통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보여주며 그래서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하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에게는 환난과 시련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그를 위협하지도 좌절시키지도 못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호령하며 짓밟고 일어선 당당한 승리의 삶을 살았다.

환난에 처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첫째로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성과 마귀의 도성이 싸움을 계속하는 전쟁 마당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병졸들이다. 성도들이 마귀의 세력에 의해 공격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마귀는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공격한다(벧전 5:8,9). 그들의 졸개들인 사람들을 사용하여 성도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기도 한다.

루터는 자기를 공격하는 마귀가 보름스국회의사당의 기왓장처럼 많을지라도, 제국의 황제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증거 하심을 통해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행 20:24)고 선언하며 싸움터를 향해 전진 전진했다.

둘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방법으로 환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공의와 경건을 무시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물질과 우상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적 시련과 환난을 보내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천년 동안의 교회역사도 이를 증거하고 있다. 평화의 시대가 계속하고 교회가 세속화하고 부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환난의 바람을 보내어 당신의 교회를 정화시킨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①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환난의 바람을 보내실 때 이를 피하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연대책임 의식을 가지고 환난의 채찍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생활을 통한 환난과 시련이 임할 것을 예언했을 때 백성들은 그와같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평화, 평화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듣기를 좋아했다. 에레미야는 일어나서 외쳤다. 너희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라. 이것이 너희가 살길이다! (렘 27:12).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의 채찍을 맞으려는 순종의 자세는 참으로 귀한 자세이다. 불안한 정세를 피해 해외로 이민 가려는 심리는 성경적으로 믿는 성도들의 심리는 아니다.

②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이 임할 때, 내 이웃과 민족이 죽음과 파멸에 쓰러져 신음할 때 통쾌하게 생각하거나 그 책임을 모두 남에게 전가하는 원망과 정죄의 심리를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성도들은 환난의 처지에서 무엇보다 먼저 통곡하며 울어야 한다.

다윗은 시갈락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들의 짐을 불 사르고 처자들을 모두 사로 잡아간 처참한 형편에 처한 일이 있었다. 그때 다윗은 지도자로서의 체면을 차리기에 앞서 그와 함께 한 백성과 함께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삼상 30:4)고 했다. 환난에 처한 부하들과 백성들의 잘못을 따지고 정죄하고 처

벌했던들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공급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지도자 다윗을 먼저 통곡하며 울었다. 울음은 상처를 싸매주고 굳어졌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죄와 허물을 누우치게 하고 낙망하여 쓰러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해 준다.

범죄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임했을 때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도 통곡하며 울었다. 주님도 범죄한 에루살렘성 위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

이 울음은 악의에 찬 원망의 울음이나 낙심에 빠진 비관의 눈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눈물이 되어야 하며 자기의 허물을 가슴 아프게 느끼는 회개의 눈물이어야 한다. 누구 한 개인의 잘못을 탓하기에 앞서 모두가 자기의 잘못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겸허한 참회의 눈물이어야 한다. 환난에 처한 성도에게 있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이 같은 눈물이다.

③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이 임할 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나 저주스러운 일이 아니라(벧전 4:16)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며(히 12:6) 즐거운 일이며 영광인 것을(벧전 4:13, 약 1:2)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개인과 민족을 하나님이 쓰실만한 도구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시를 수납하고 보전하고 세계만방에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까지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시아 복음화의 선교적 사명을 담당할만한 팔복할만한 교회로 성장하기까지는 그 이전에 한국민족이 경험했던 수많은 수난과 시련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 ×

필자는 위에서 환난에 처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 몇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을 모두 정당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가정 등등 모든 구조에 불의와 죄악이 작용할 때 정의와 평화의 질서가 깨어지고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나며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 14:34)고 말한 솔로몬의 잠언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궁극적인 원인을 깨닫고 우리 모두 가슴에 같은 아픔과 같은 눈물을 가져야 하겠다.

□□□…… 6·25동란 30주년을 맞으며 6·25특집을 꾸며 보았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쌓이고 교회내·외적으로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6·25동란 때의 어려움을 살펴 보며 우리가 오늘의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환난 가운데에서의 성도의 자세」란 특집의 주제로 환난 가운데에서 성도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 가를 다루어 보았다. 역사적인 상황 하에서 각 시대별로 어려움이 있었을 적에 성도들이 이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살펴 보면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하였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본 특집이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환난 가운데에서의 성도의 자세

- 구약시대
하나님과 바알의 선택 김 석 원 강도사
(고등부 지도)
- 중세 및 종교개혁시대
오래 참음과 기도로 승리 홍 치 모 교 수
(종신대교수)
- 한국의 초대교회와 일제시대 /
적극적인 신앙운동 전개 안 석 렬 전도사
(어린이새신자부지도)
- 6·25동란 전후시대 /
다만 기도할 뿐 이 찬 영 목사
(성덕교회시무)



• 구약시대

하나님과 바알의 선택

김 석 원 강도사
(고등부지도)

차

레

1.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의 역사
 - 1)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환난의 역사
 - 2) 성경 이후에 나타나는 환난의 역사
2.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의 이유
 - 1) 지리적 이유
 - 2) 역사적 이유
 - 3) 종교적 이유
3. 환난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자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 1) 하나님의 성실
- 2) 하나님의 자비
- 3) 하나님의 간섭
- 4) 의지사상
 - ① 겁이 없는 담대한 신앙
 - ② 부동의 신앙
4. 이스라엘 환난역사와 한국사에 나타난 민족 환난에 관한 이해
5. 결론

1.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의 역사

1)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환난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히브리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약 4천년 전의 의인으로서 히브리 민족의 시조인 동시에, 이 세상의 창조주는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기 시작한 믿음의 시조이기도 하다. 구약성경에는 민족 시조인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의 수난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 아브라함에서 솔로몬까지 이스라엘 역사중 그들이 당한 환난의 예로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 한 후 430년 거간에 있었다. 이 기간에 민족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요셉이 죽고 왕조가 바뀌자 그들은 노예로 취급을 받았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60만명이 되었다 (민 1:46)였으니 총 인구는 약 3백만이 되었을 것이므로 대규모의 민족적 수난을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애굽 이후 팔레스타인에 들어와 약 1천년 동안 역대왕들에 의하여 흥망을 겪으며 나라가 보존되었다.

솔로몬 이후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남쪽은 유대 왕국이 되었던 것이다. (BC 983-931년)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된 이후 남북 왕조의 민족적 환난은 반복적인 외세의 침입으로 거듭되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그후 약 200년 만에 주전 721년에 앗시리아에 멸망되어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게 되었고 남쪽 유대 왕국은 그후 약 350년 동안 나라를 보존해 나가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하여 약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수난을 당했고 그후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페르시아 영토가 되었고 다음 그리이스 나라에 속했다가 다시 로마 장군 톨메이우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 당하여 함락 되었다.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어 로마 제국이 봉한 헤롯왕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2) 성경 이후에 나타난 환난의 역사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가장 큰 재앙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그 성(城)이 파괴 된 것이다.

이 일이 있기 2년전 「가이사랴」의 이방인들은 2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했고 수천명을 노예로 팔았다. 「다메섹」 주민들은 불과 하루 동안에 만명의 유대인 목을 잘랐으며 「예루살렘」성 포위 당시에만 해도 11만 6천이나 되는 유대인 시체가 성 밖으로 내 던져졌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거의 10만명의 망명인들이 체포되어 노예로 팔렸다고 한다. 교회사가인 「조셉투스」는 백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포위해 죽임을 당했다고 추산 했다.

약 115(A·D) 년경 「에집트」 「싸이프러스」 「메소포타미아」의 유대인들이 항거하여 일어났으나 이 반란은 진압 되었다.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는 「팔레스틴」에 있는 985개의 도시를 파괴했고 58만명을 살해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사멸 당했다고 한다.

많은 유대인들은 말(馬) 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팔렸고 그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다만 매년 하루를 정하여 「통곡의 벽」이 있는 성전의 폐허 앞에 와서 울곤 하였다는 것이다. 박해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수난은 중세기에 까지 계속 되었다.

A·D 1096년 「터키」의 회교도로 부터 「팔레스틴」의 성지를 되찾으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을 때 「십자군」들은 「터키」인과 싸우기 전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일 기세를 보였다. 「볼리인」의 「고드프레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유대인으로 부터 찾을 것이며 그들을 전부 멸종 하리라고 장담했다.

제 2차 「십자군」은 A·D 1146-1147년에 일어났으며 첫번의 대학살을 능가 하려는 위협을 보였으며 장기간의 맹렬한 공격이 있었다.

유대인의 관례적 박해와 학살은 제일 처음 A·D 1144년에 일어났고 「독일」을 비롯하여 「영국」 특히 「런던」 「캔터베리」 「캠브리지」 등지의 유대인 집단이 깨끗이 전멸 당했고 1257-1267 년 이후로 부터 그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290년 에드워드 1세는 남아 있는 유대인에게 11월 1 일 까지 「영국」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 불란서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1236년 「십자군」이 「양주」와 「뽀와뚜」에 있는 유대인 정착지를 침입하여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강요했고 이를 거절했을 때 「십자군」들은 그들이 말의 발굽으로 유대인 3천명을 짓밟아 죽였다. 1254년 유대인이 「불란서」로부터 「루이스」 9세에 의해 추방 당했으나 수년 후 다시 입국 허가를 받았고 「빌립」(Phillip the Fair)는 수명의 유대인을 옥에 가두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1306년에는 10만명을 「불란서」로 부터 추방했다.

1348-1349년 흑사(Black Death)라고 하는 역질

이 유행하는 동안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고 책임 추궁을 받았다고 한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은 「폴랜드」와 「러시아」로 이주해 갔다. 「스페인」에서는 조건이 더욱 악화 되었고 「1492」년에는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다. 그 당시에는 「독일」과 「이탈리」의 북부지역을 제외한 전 「유럽」이 유대인을 거부 하였다.

17세기 중엽이 가까이 이르러 「폴랜드」에서 제1차로 박해가 일어났다. 17세기 후반기에는 유대인 사회가 송두리채 저락된 반역자들과, 실훈 타락한 물주, 그리고 버림받은 통역인들로 구성 되었다는 혹평을 받았다. 17세기말 「유럽」에 있어서 「유대인」해방은 1789년 「불란서」 혁명과 더불어 그 먼동이 트기 시작했는데 2년 후 「불란서」에 있어서의 유대인 해방은 역사적이었다. 그런데 다시 18세기초 놀랄만한 유대인 대학살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다.

역시 유대인 배척주의는 저하되지 않았다. 18세기말 「불란서」의 「드레피스」사건(The Dreyfus Affair) 유대계의 프랑스군인 Alfred Dreyfus가 반역죄로 몰린 사건-1903년 「키키 네프」의 대학살 등은 그때 까지도 유대인 배척주의가 격렬하다는 것을 예시해 주었던 것으로 본다. 최근에 세계 제 2차대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수난은 6백만 유대인 근절에서 산 역사를 찾아 볼 수 있다.

2. 이스라엘 민족의 수난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이나 성경이후 시대에 많은 고난, 수난을 가져게 됨에는 피치 못할 몇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세계 만방 모든 민족의 역사가 눈물과 피의 기록을 가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빈도와 정도가 다른 민족에 비하여 월등하게 크다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다음의 몇가지 까닭이 있는 줄 안다. ① 지리적 이유 ② 역사적 이유 ③ 종교적 이유 등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이유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1) 지리적 이유

한 민족의 문화와 역사가 형성함에 있어서 그 민족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의 지리적인 조건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어느 민족의 경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에서 고난을 경험했다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거주한 땅의 지리적인 조건들이 모두 수난의 역사를 만들기에 알맞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을 방문해 보면 세상에서 사람이 살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을 만치 흙보다 돌과 바석이 더 많은 땅이라고 한다. 동쪽은

광막한 무인지경, 아라비아 사막에 잇다랗고 서쪽은 지중해, 남쪽은 유대 광야로 역시 불모의 지대, 그리고 북쪽은 산악지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는 고르지 못하고 1년 절반은 우기요 절반은 가뭄을 당하여 비한 방울을 구경못한다고 한다. 농토가 넉넉치 못하니 농업에도 적당하지 않고 초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축업도 부적당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자원·금, 은, 철 등이 묻혀 있는 곳도 아니고 또한 바다가 인접하여 항해와 어업으로 적당한 곳도 아니다. 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는 요단강을 제외하면 강도 시내도 별로 없고 우물 하나 가진다는 것은 금광을 찾아 내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우물 싸움 기록을 구약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창26:16 이하) 예루살렘 같은 도시의 운명은 그 도시의 물의 문제와 항상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이 정착한 그 땅은 개방된 지역이었다. 고대 근동의 두 문화권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과 군대의 왕래가 빈번했고 문화 및 종교의 교류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던 개방된 지역이었다.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남서쪽에 애굽이 위치해 있다. 세력이 한창 팽창할 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애굽의 군용 도로 구실을 했고, 애굽은 다른 먼 곳까지 세력을 확장 할 수 있었다.

동쪽으로는 사막을 건너 여러 민족의 이동은 “기름진 초생달 지대”의 왼쪽 부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불가피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능히 상상된다. 팔레스타인 북쪽은 오늘날 시리아(수리아, 아람)와 레바논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이 지역은 고대 헷족속(Hitties)인데 헷족의 남하 정책이 팔레스타인에 미치는 적지 않은 위협이었다. 이처럼 세 지역의 역사적 변동에 의해 결정 되다시피 했다. 통치자 사이에 패권 장악을 위한 투쟁이 생기면 그때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세력 투쟁의 틈바구니에 끼여 수라장이 되기 일수였고 수난의 역사 현상이 되었던 것이다.

2) 역사적 이유

이스라엘 민족의 수난의 역사적 이유는 구대역 말한다면 지리적 원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리적 원인에서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팔레스타인 위치가 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주위에 있는 큰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팔레스타인은 오랜 역사에서 항상 북쪽 아니면 남쪽에서 쳐들어 오는 강대국의 침략자의 첩포를 맞고 항상 처참하게 쓰러지고 상하고 찢기우고 그 결과로써 그 어느 한쪽에 예측되고 마는 슬픈 수난의 운명을 역사상 되풀이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

스타인이란 세계 어느 민족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하다.

3) 종교적 이유

이스라엘 민족의 수난사는 곧 그들 자체가 가졌던 신앙의 투쟁사요 종교 수난사임이 확실하다. 한 종교의 수난이라는 것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투쟁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투쟁의 배후에는 언제나 이질적인 요소의 침입으로 생기는 충돌과 수난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민족 자체에서 일어나는 배신적인 요소에서 볼 수 있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투쟁사는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때부터 시작한다.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기자가 지적하는대로(신:26:4) 본래 유목민이었다. 그들의 생활이 대자연과 더불어 싸우는 단순한 생활이었으며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케 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갔다. 다른 신을 섬기고 어떤 물질들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 섬기는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분명한 거부 태도를 보여주어 왔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됨에 따라 달라진 환경에서 다른 생활을 해야했다. 그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정주해 온 가나안 민족들의 삶의 체계와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 이를 모방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영향력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종교에 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에 일대 위협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는 중에 그들은 이방을 점령하고 정착한 당시에 이르러서는 이방신 바알의 존재와 위력을 전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양자 택일해야 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적인 투쟁이 엘리야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신앙의 순수성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웠다.

가멜산에서 바알 신지자 450명을 단독으로 대결해 싸웠다. 이 싸움에 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종교적인 투쟁 정신이 전 역사에 자랑스럽고 강한 일로 기록되었다.

이런 투쟁은 국가의 정책상으로 일어 나기도 했다. 허스거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그리고 역대에 예언자들도 이러한 신앙 투쟁을 과감하게 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종교적인 투쟁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난의 원인은 종교적 투쟁에서이다!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할때 그들이 바알을 선택함으로써 당하는 수난은 엄청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3. 수난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자세와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들의 수난은 어떤 것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당면한 수난을 어떻게 해결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확신과 맹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 확신은 이 어떤 수난 속에 빠졌어도 그 수난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수난중에 멸망하도록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었다. 이 신앙을 해부하면 그들을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심을 가진 것이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난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 수난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시는가를 자랑하려는 사람들이었다. 수난의 백성이 지은 수난시의 대표적인 시, 시편13편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고통중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 까지니이까? “하는 탄식의 소리를 연발하지만 이 시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요하고 잠잠한 확신의 노래로 “감사한다 찬양하라”로 끝나고 있다. 이러한 확신은 내용면에서 하나님 자신이 가진 본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성실하고 자비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여기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줄 안다.

1) 하나님의 성실

수난의 이스라엘인들은 자기들의 생의 비극과 육체적 정신적 쓰라린 여러가지 경험들을 하나님의 진실과 그 성실에 호소하고 있다. 이 성실과 진실은 계약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진실과 성실 없이는 계약 관계가 성립 될 수 없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진실과 인간의 진실이 서로 만날 때 생긴다. 하나님의 진실에 의심을 가지거나 인간 자신에게 성실과 진실이 결여 될 때 신앙 관계는 생길 수 없다. 「히브리서」기자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설명하는 말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히11: 8)”했다.

이는 목적지를 모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단하고 나선 것은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과 성실을 믿은 것이고 또 이 믿음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창15: 6)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관계를 부부관계와 같은 인격적인 약속으로 본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실로 맺어진 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진실함으로 네게 장

가들어서 내가 여호아를 알리라(호 2: 20)” 이는 호세아가 이방 신에게 정조를 빼앗긴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그들을 다시 한번 더 계약의 관계를 가지도록 선도하는 것이다. 이 계약 관계는 의와 공평, 은총과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기본으로 하는 관계라고 설명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수난은 하나님의 성실이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상에 인도하여 온 구속사 안에서 경험하는 수난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여러가지 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실에 호소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수난을 경험하며 심령이 상하고 마음에는 참담함을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 때문이었다.

시편 89편 시인은 하나님의 성실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시편 첫 구절이 하나님의 성실을 노래한다. 내가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함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리다. (1절)

이렇게 성실함을 보여 주시는 자들의 하나님은 아무 신과도 비교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라고 자랑한다. 하나님의 성실에 대해서 이처럼 부동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 경우에서 당면하는 수난이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틈내지 못한다. 다음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음에서 더욱 그러하다.

2) 하나님의 자비

수난 당하고 심령은 위로를 원한다. 위로는 자비함에서 나온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함을 받은 자의 강제보다 그것을 베푸실 자의 강제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고난 당한 경건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긍휼을 간구하고 애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긍휼하심이기 때문이다. 어려움에 싹을하는 자식을 돌보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같이 하나님은 수난중에 있는 인생들을 돌아 보시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제요 그 자비의 독재다. 이 사랑의 독재 앞에는 아무것도 항거 할 수 없다.

사랑의 예언자 호세아가 가르치는 교훈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독재성이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선포하는 대신 사랑의 망극하심을 외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주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듯 하다”(호11: 8)

여기 공홀이 불 붙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끝 수 없을 만치 강렬함을 말한다. 이와 꼭 같은 표현이 솔로몬에게 재판하는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애라고 할 때 나타났다. 즉 참 어머니는 솔로몬의 판단이 칼로 그 아이를 절반 자르라 할 때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상 3:26) 이것은 공홀함이 극진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수난의 시인들의 신앙에는 이 하나님의 공홀함을 그들의 수난을 극복하는 큰 힘으로 믿고 있다. 그들의 호소와 간구의 내용으로 종종 하나님의 공홀하심에 호소하고 있다.

나를 공홀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 4:1)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공홀히 여기소서 (시 6:2)

다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홀하심이 어떻게 수난자의 구원에 필요한 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간섭과 중심에 대해서 굳게 믿고 또 그런 간섭을 해 주시기를 간구함에서도 볼 수 있다.

3)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이란」 사상적인 배경은 무엇보다「출애굽」이란 한 역사적 사건과 결부 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그 동기와 경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이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타지 않는 가시덤불에서 먼저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실 것을 말씀하였다. 모세 자신은 그 백성을 피하여 도망 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도피자 모세를 찾아서 그의 구속 사업의 실천계획을 피력했다. 하나님의 자진 간섭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난과 결부되어 있다. 출 3:9에 이것을 말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고통을 풀어 주시기 위하여 자진 간섭하심을 모세에게 알리셨다. 이 간섭이 결국 「출애굽」이란 대사건을 역사상에 기록하셨고 이 대사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대대로 전파하는 신앙의 사건이 되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간섭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룩한 큰 대목의 하나다.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그 백성들이나 어떤 지도자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되었다고 생각함 보다 하나님이 그 민족 역사에 자진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역사관은 하나님이 사역하심에 기준을 둔 역사이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적 기록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다 함에 대한 것 만이 아니라 그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역사를 이루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의 대상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상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에서 이해한 역사였다. 이 사상은 구약과 신약, 신앙세계에 있어서 연속되어 있는 한 중요한 신앙내용을 이룬다. 즉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고 그 역사를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상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완성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하나님 간섭」사상에서 나오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섭리사상에 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발걸음 하나 하나가 다 그의 간섭하심에 좌우되고 있다. 이 간섭사상에서 “하나님의 허락없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신약 사상에 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4) 의지사상

수난을 극복하는 다음 요소로서 「의지사상」을 들 수 있겠다.

「믿는다」는 개념은 믿는 대상과 믿는 주체자와의 관계에서 이해 될 것인데 의지심은 신앙을 가지는 사람 자신의 태도 표시를 말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하시고 성실하시고 또 아무리 크신 능력을 가지고 간섭해 주신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관심과 행동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신앙이 생길 수 없다.

수난과 의지심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은 하나의 오랜 역사를 가지며 그 사상의 특징들을 들어 보기로 한다.

① 겁이 없는 담대한 신앙

의지사상의 가장 오랜 예의 하나로서 그것은 「겁이 없는 담대한 신앙」이라 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 23편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찌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 하지 않겠다”한 것은 그의 두려움을 없애 주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겁이 없는 담대한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② 부동의 신앙

“부동의 신앙을 노래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난시는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2편이다. 이 시는 의지 신앙을 표현하는 여러 구절들을 볼 수 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다” (1, 5절)

“언제나 그를 의지하라” (8절)

“그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8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요동 하지 않는
「절대 안전」의 축복을 받는다고 확신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난의 의의를 분명히 알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천태만상의 수난
을 극복 할 수 있었다. 시편 119편에는「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다.

그 까닭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수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4. 이스라엘 수난 역사와 한국사에 나타 난 민족 수난에 관한 이해

한국사와 이스라엘 역사는 똑같이 수난사임은 주
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수난사이지만 그 수난
의 각도는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
사적 수난을 당할 때 또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민족
의 신앙에서 찾았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특
징이었다.

그러나 한국사에서는 역사가 오래고 민족 생활 속
에 뿌리박고 있는 잡다한 신앙은 있으나 그것이 이
스라엘 경우와 같이 민족 신앙으로 통일이 되어 있
지 못했기 때문에 민족 수난사를 신앙으로 받아들
이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리 민족의 수난사는 항상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은 삼국시대 이후 전쟁에 시달린 나라였는데 삼
국시대 이후 전쟁의 횡수를 세어보면 모두 백여번이
나 되고 그 전쟁을 분석하면 60%가 외국의 침략으
로 일어났음은 전쟁이고 그 외적 침략은 국부 전쟁보
다 3분의 1이 넘었다고 한다. 그래서 삼국시대 이
후 이 나라 땅은 늘 뺏긴 것 뿐이다. 그래서 국민 생
활은 항상 전쟁의 상처가 채 닳기도 전에 또 다른 전
쟁을 맞이하여 하루도 마음놓고 살 날이 없었다고 한
다. 우리는 이 많은 전쟁중에서 민족적 수난이 가장
극심했던 임진왜란 사건은 이 민족의 삶이 얼마나 비
참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이 민족이 당한 수난을 살펴보자. 이
수난 사건에 대하여 많은 문헌이 있지만 이것을 종
합해서 말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조근목피로 식량을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길거리
에서 대낮에 사람들을 잡아 먹었고, 서울 수구문 밖애
대다 버린 시체가 산같이 쌓여 그 높이가 성높이 보
다 더 높았고, 그것을 처분 하는데 일년이 넘어 걸
렸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서로 다투어 뜯어 먹었
다고 한다. 나라에서는 국고가 말라 전쟁난 지 1년후
에 벼슬 팔기를 공공연하게 행하게 되어 백석(百石
에 3품(三品), 삼십석(三十石)에 5품(五品), 이처

럼 계속되다 나중에는 살려고 원하는 사람도 없었다
는 것이다. 더욱 이 전란으로 귀중한 문화재는 소실,
파괴 당했고 일본으로 잡혀간 포로의 수는 오륙(五
六)십만에 달했고 대부분의 포로는 노예로 팔려 강
제 노동 당했고 심지어 화란, 포르투갈 상인들의 손
으로 넘겨 마카오, 마닐라, 인도지나에 팔려간 수도
수 만에 달했다고 한다.

6·25사변에 이 민족이 당한 수난은 어떠한가?

6·25사변 때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느냐. 130만 이
상 죽고 250만 이상이 부상 당하고 미망인이 33만 이
상이요, 부모 잃은 고아가 10만 이상이었다고 한다.

임진왜란과 6·25의 민족적 수난과 참상을 이스
라엘 역사상에 나타난 수난의 일면과 비교해 보자.
애가서에 나타난대로 그들의 나라가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인하여 망했을 때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쟁의 피해가 나라 전역에 미쳤다는 것

둘째: 모든 국가적 보물이 약탈 당하고 불타고 파
괴 당한 것

셋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보물을 팔아 식량
을 사던 것

네째: 생명의 살육이 심하여 거리와 산하가 시체
로 덮혔다는 것

다섯째: 기근이 심하여 칼에 죽은 자보다 굶주려
죽은 자가 많다는 것

여섯째: 식량을 구하지 못하여 사람을 잡아 먹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것(4:10)

일곱째: 도시가 변하여 여우가 거하는 굴이 되었
다는 것(5:18)

여덟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갔다는 것

이런 참상과 비극을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이스
라엘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생긴 비극이라는 것을 잊
어 버리지 않는다. (애가 5:16) 이런 비극을 한국
사가들은 외적의 침략주의로 규탄하지만 이스라엘사
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느 일이라 하여 신앙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수난의 역사와 그 원인,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찰해 보았고 이
스라엘 민족의 자세와 한국사에 나타난 한민족의 자
세를 비교해 보았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난에서 이
스라엘 민족의 수난은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신
앙이 상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
었다. 수난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문제와 상
호 연관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관의 독특성이 있었

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사관 형성은

① 여호와와 의지 신앙이 강한 것

② 이스라엘 민족 자신만이 가졌다고 자부하는 선민 사상.

③ 여호와와 이스라엘은 피차 계약을 맺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계약 사상.

④ 이러한 상관 관계가 그들이 가진 “율법”에 구체화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철두 철미 하나님의 백성의 사상에 젖어 있었다. 그 나라가 흥하고 망해도 이 사상을 버리지 않았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가장 큰 민족적 수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자랑했다. 그들의 삶 전체를 아무리 포로민의 수난과 수치의 삶에 있어서도 그 기본적인 민족의식을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상을 자랑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상이 구약 성경을 일관하고 있어 그들은 수난에 대처할 수 있었다. 민족 의식과 역사의식은 항상 개발되었다. 신명기에서 이해한 민족관의 특징은 신관이었고 이 신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책임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한 이스라엘은 여러가지 축복을 받은 것과 그 축복 받은 조건으로 여호와와 율법을 준수함에 있다고 했다. 이 백성이 누릴 최선의 축복은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보호해 주심을 증거하는 일로 알았던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상이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랜 역사를 두고 당한 수난도 대처할 수 있었고 수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의 산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민족의 민족 의식은 어떠한가? 고작해야 “단군의 후손” “충무공의 후예” 등으로 민족적인 긍지를 가진다. 또한 “화랑정신” “3·1운동 정신”을 내세운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 영웅들이 우리 역사에 끼친 공을 등한시 할 수 없고 민족 정신을 부각시켜 준 공을 되새길 필요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비극과 수난을 해석할 때 평민적이고, 이성적이고, 숙명적인 해석에만 그쳐서는 안 될 줄로 본다. 이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이 민족의 당한 수난에 대하여서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대 주재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민족의 행위에 책임이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제 이 나라와 온 성도들은 외적의 침입과 수난 속에서 해방된 일과 6·25의 전쟁 중에도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해석하는 신

앙적인 안목이 필요하겠고 모든 수난의 역사를 하나님의 간섭과 관련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민족적 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각한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물음에도 최대한 진실하게 대답해야 할 것이고, 성도는 이 물음의 대답에 최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다.

여기 한국 민족의 수난의 역사는 더 이상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결정적 유무가 있다고 본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난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바알을 택했을 때 수난을 당했던 역사의 거울 앞에서 우리 한민족의 자세와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췌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6·25 30주년을 맞이하는 민족적 수난을 연상하는 때 “바알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물음이 절실히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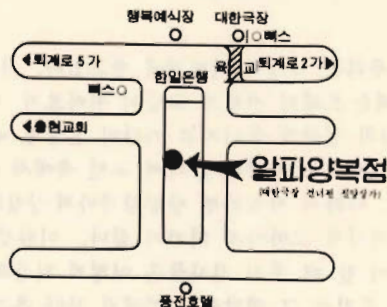


알파양복점

◎ 선물용 티겔 발행

◎ 출장 주문·가봉·배달

김 은 호 장로



서울·중구충무로 4가 125-1

진양상가 라열 152호 전화: 261-2876

• 중세 및 종교개혁시대

오래 참음과 기도로 승리



홍 치 모 교수
(충신대교수)

오늘 우리는 역사적 격변기에 살고있다. 이와같은 혼란한 때는 으레 시련과 고난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기강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되며 고민 속에서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자칫하면 방향감각마저 상실하게 됨으로서 역사적 고아마져 되기가 쉽다. 이와같은 위기를 맞이 할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 부끄럼 없는 진실하고 몇몇한 신앙생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시편 50편 15절을 볼 것 같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따금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 그것을 성경이 실제로 증거하고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해방자 모세 그리고 욥 과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인생은 미련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인생이 미련하고 우둔하기 때문이다.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에야 비로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겨우 깨닫게 되는것이다. 하나님은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민족에게 이따금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 이방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주시는가? 이 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죄때문에 내리시는 벌로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고생을 해야 된다. 이와같은 사실은 구약성경에서 그 예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며 훈련시켜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따금 사랑의 시련도 주시곤 하신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평안한 때가 오래 지속되면 안의 한 생활 속에서 영적생활이 해이해지기 쉽다. 따라서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한결을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까지 부패의 요소가 싹트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가리워지게 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인자의 존재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긍휼과 자비가 풍부한 분 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참으시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와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심판도 하시고 벌도 주시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미리 예방 하도록 사전에 경고의 조치로서 우리들이 능히 감당 할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한편 경건한 신자들은 이 땅위에서 하나님의 의와 화평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 이와같은 고난은 신자가 받는 고난 중에서는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필자는 종교개혁시대에 활동했던 많은 신앙의 용사들 중에서 한 두 사람만을 골라서 그들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알렉산더 페덴(Alexander Peden)이라는 목사는 스코틀랜드의 산 순교자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다.

그는 계약파(契約派)에 속해 있었다. 1660년 크롬웰장군이 죽고 왕정복고가 된 후 목사직에서 추방되었다. 그는 그렌록(Glenluce)이라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던 중 감동제 교회를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의 목회지는 들이요 산야가 되었다. 이때부터 방랑목사가 된 것이다. 그는 스코틀랜드 각지를 두루 다니면서 이전보다 더 무게가 있고 확신에 찬 설교를 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는 숨은 신자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모여들어 관현의 눈을 피해서 산비탈이나 숲속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다. 케덴목사는 아일랜드에 건너가서도 똑 같은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는 발각되고 말았다. 그는 감옥에서 수년간 갇혀 있는 중 장로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다 가혹한 장소로 이송되었다. 그 곳은 외딴 섬인데 에딘버러시에서 배를 타고 약 두시간 걸리는 절벽의 섬이었다.

섬 이름이 큰 암석(Bass Rock)이라고 부를 만큼 섬 전체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섬에는 무기징역수를 가두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케덴목사도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이 곳에 수감되었던 것이다. 한번 갇히면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절망의 섬이었다. 그러나 케덴목사는 실망하지 않았다. 고난 중에 실망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는 실망해 본 일이 없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로마서 12장 12절) 신앙인이었다.

케덴목사는 죽음을 면하게 되자 곧 미국에 노예로 팔리는 몸이 되었다. 그는 미국에 노예로 팔려가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에 아송시키기 위해서 일단 그를 런던시로 이송시켰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자유의 몸으로 석방시켜 주었다. 전혀 상상치도 못할 기이한 일이었다. 케덴목사는 석방되자 곧 스코틀랜드에 돌아와 고향인 아이샤이어(Ayshire)에 있는 산속 깊은 동굴에 숨어서 죽을 때까지 기도의 생활로 일관하였다. 그는 자기를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 낙심치 말 것을 강조하였고 얼마 지나면 믿음의 자유를 다시 얻을 때가 올 것이라고 격려와 위 의 말로 희망을 주었다. 그는 168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죽은 지 4년이 지나서 스코틀랜드에는 다시금 장로교회가 부활하게 되었다.

케덴목사의 신앙과 그의 굵직한 많은 의지 그리고 갖은 고난 속에서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적 정신은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스코틀랜드의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1707년 의회가 해산함으로써 스코틀랜드왕국은 역사상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따라서 국가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적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마다 반드시 부르는 노래가 있다.

그것은 시편 23편이다.

시편 23편은 이미 스코틀랜드 국민의 영혼 속에 스며들어 토착화된 지 오래였다.

그들은 기쁨 때나 슬픔 때나 이 노래를 부른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그들은 왕이 없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케도 하신다. 그러나 두려워 할 것이 없다. 여호와가 지켜 주시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국민은 한국 백성 못지 않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 온 민족이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여!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들은 물질의 축복을 기원하지 않았다. 물질이 풍부한 가운데 나태와 향락생활을 하는 것보다 가난 속에서라도 고상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천배나 만배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국민의 비애와 환희가 시편 23편에 스며들어 그 노래가락이 그들의 심장에서 터져 나올 때 눈물 없이는 부를 수가 없는 것이다. 은은하면서도 구성진 멜로디는 듣는 이로 하여금 옷깃을 가다듬게 하며 숙연케 한다.

1660년부터 1690년까지 30년동안 스코틀랜드에서는 해아릴 수 없는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 “살인 시대(Killing time)”라고 할 만큼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였다.

이 시대를 오래 참음과 기도로 승리함으로서 오늘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끝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함으로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회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2장33~39절)



• 6. 25동란 전후시대

다만 기도할 뿐

이 찬 영목사
(성덕교회시무)

민족적 대 비극인 6·25전쟁이 발생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그 당시 젊은이로 그 무서운 전란을 친히 겪은 사람들은 벌써 50고개를 넘어 노장년(老壯年)이 되었고, 그 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를 젊어지고 나가니 과연 세월의 빠름과 더불어 역사의 년대를 정하시는 하나님(행 17:26)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있게 마련인데 그중에서도 6·25 30주를 기해서 전쟁 환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말하련다.

1. 기독교의 전쟁관(戰爭觀)

인간사회는 몇천년간 몇백대를 두고 발달해 오는 과정에 매우 복잡한 사정들이 많아 한마디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많은 국가·민족 단체가 생존 경쟁(生存競爭)을 일으키며 서로 이해관계와 이기적인 본능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의와 사상, 이념과 정치체제가 서로 다르고 생활양식과 생의 목적들이 상반(相反)되기 때문에 개인간의 다툼, 이웃간의 싸움, 크게는 민족·국가간의 전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쟁은 많은 물자를 탕진하고 인명이 상실되니 경솔히 시작도 못하지만 했다면 둘 중에 하나는 패망하고 아니 둘 다 패망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제 기독교의 전쟁관은 무엇이나?

성경구약의 대부분은 전쟁의 사시(史詩), 사화(史話)요 또 여호와의 만군(萬軍)의 여호와라고 군대술어로 불렸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거를(마 10: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劍)을 주러 왔노라” 하였고, 눅 14:31에는 신임 생활을 전쟁에 비유하여 교훈하셨다.

바울도 군인의 사명감을 역설하였으며(딤후 2:4), 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딤후 4:7)하였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전쟁을 권장도 아니하고 금지한 바도 없다.

전쟁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으니 침략전(侵略戰)과 방위전(防衛戰)이 있다.

침략전은 인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방위전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 기독교인은 방위전을 아니할 수 없다.

비유전대 식물(植物) 중에서 잡초나 가시덤불은 제거하고, 곡초나 화초·과목을 기르는 것과 같고, 동물(動物) 중에서 맹수나 독충은 퇴치하고, 양순하고 유용한 동물은 애호·사육하는 이치다.

법학상으로는 정당방위요, 도덕상으로는 죄악숙청이다.

2. 6·25를 통하여 잃은 것과 얻은 것

무슨 일이든지 그 경과 과정에서 비록 차이는 있어도 득실(得失)이 각기 있다고 보면 6·25를 통하여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무엇이나 살펴보자.

먼저 잃은 것을 대략 간추리면

- 1) 남북한의 강토가 초토화되고
- 2) 유엔군측의 전비 150억불
- 3) 아군 전사 및 실종자 30만명
- 4) 부상자 및 납치인사 35만명
- 5) 전제면 300만명
(공산군은 5백만되는 180만명 희생)
- 6) 시설 총피해액 30억불
- 7) 공업·탄광·발전시설 파괴 45%
- 8) 주택 파괴 35%
- 9) 소실된 매매당 1,370대
- 10) 희생(순교·납북 등...)된 교역자 400명 또 도

덕적으로 볼 때 미군 및 유엔군의 주둔으로 발생한 외국적 풍조는 이땅의 미풍양속(美風良俗)을 해치고 윤리적으로 극심한 타락과 파괴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또 얻은 것은 무엇이나?

- 1) 민족적 단결에 대한 자각심 발생
- 2)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 강화
- 3)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 자심
- 4) 원조국가(U·N)에 대한 감사심 증가
- 5) 불행자들을 도와야 할 책임감 절실
- 6) 정의는 필승한다는 신념의 교훈
- 7) 희생이 있는 곳에만 승리가 따름을...
- 8) 국군전도의 문이 열림(군목제도)
- 9) 거국적인 전도운동 전개
- 10) 성도들의 진정한 회개의 결실

그 밖에도 잃고 얻은 것이 많으며 각자 판단하는 면과 목적의 차이점으로 틀리는 것도 많을 것이다.

3. 앞으로 닥칠 전쟁환난과 이에 대한 성도의 자세

1912년 발칸전쟁 이래 이 지상에는 포화(砲火)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쟁 중에 나고 자라고 늙어 죽어간다.

더구나 우리 한반도의 실정은 국내적으로 보아 계속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언제 또 다시 6·25의 재판이 전개될런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이는 무서운 전쟁환난이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致命的)환난이다. 다른 환난은 나 개인이 조심하고 주의하면 피할 수도 있고, 극복·승리할 수도 있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닥치는 환난은 개인적 입장에 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몇가지 생각하며 실천하도록 하자.

1) 먼저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인 줄 알고 믿자.

다윗이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격퇴시킬 때 “여호와외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 17:47)라고 하였다. 북괴의 침입설이 제 아무리 전쟁에 발판을 하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자.

요을 시험한 사단이 자기 의사로 요을 괴롭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결제를 맡아서 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요 1:12, 2:6) 무턱대고 전쟁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을 느낄 것은 없다.

2) 정의가 필승한다는 신념을 굳게 가지자.

앞서 말한대로 전쟁에는 침략전이 있고 또 정의의 방위전이 있다.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먼저 불의

의 침략전을 감행하여 승리하는 듯하던 악한 자들은 결국 패망하고 말았다.

군국주의 일본(日本)이 태평양의 낙원 하와이 전주만을 급습 침략하더니... 또 나치스 독일(獨逸)이 유럽천지를 급타하여 전격전을 전개하더니 결국 패망하였다.

공산주의 북괴군이 평화스러운 이 땅에 그것도 거룩한 주일 새벽을 기하여 (1950. 6. 25) 남침을 감행하더니 결국은 패전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역사상 많은 전쟁이 있었으나 그 동기를 살펴 볼 때 한번도 남을 침략하는 전쟁을 먼저 한 일이 없고 침략 적군을 정의의 방위전만 하였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찬양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온 세계에 자랑하고 영원히 빛날 역사다.

3) 기도할 것 밖에 없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난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신앙의 거도를 할 것 밖에 없다. 기도는 만능이다.

내 힘으로 못할 일을 기도하여 하나님께 상달되는 결과 하나님께서 하시면 천하에 못할 일이 무엇이든 안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기도는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 강하다고 하였다.

실화 하나를 소개한다. 제 1차 세계대전 때 천연 년간 터키(土耳其)군이 점령하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영국군 총사령관 앨렌비가 완전 포위하는데 성공하여 이를 영국 왕 조지 5세에게 보고하고 총공격의 결제를 기다렸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운 예루살렘을 공격한 역대 모든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공격을 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인간방면으로 생각하면 물지각하고 어리석은 일이나 명령이니 믿고 기도를 시작했다. 한편 터키군은 포위된 줄 알고 불만에 떨었으나 몇일간 너무 조용하니 더욱 불안하여 자진하여 포기하고 한편 문으로 도망칠하였다.

이 극적인 결과에 감격한 앨렌비장군은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송을 부르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고 한다.

기도는 만능 만사를 만능케 하시나니 전쟁환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결국 기도할 것 밖에 없다.

마지막 성경 한구절로 결론을 맺는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라” (롬 5:3~4)

• 한국의 초대교회와 일제시대



적극적인 신앙운동 전개

안 석 렬 전도사
(어린이새신부지도)

일제하에서 우리 국민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겪은 분들은 이 표현이 너무나도 약하다고 하실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서뿐 아니라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까지 자유는 물론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압박하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애국운동을 펼쳐 마침내는 8·15 해방의 기쁨을 가져왔던 것이다.

현대를 살고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하여 좋은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독교인은 소극적이고 분리적이고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서는 더욱 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수난을 당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은 행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내의 많은 교인이 이 문제에 궁금해 한다.

과연 기독교인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가? 았아만 있었는가?

필자는 이 물음을 다음과 같이 바꿔 보고자한다.

과연 기독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도 알고자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일제하에서의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알아봄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난을 어떻게 이겨 나갔는가를 배우고자 한다.

일제하에서의 기독교인은 국가적 수난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이 생각지 못할 종교적 박해까지도 견하여 받았음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민을 중요하게 여지기보다는 한국의 기독교를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러가지 박해와 공작을 감행

하여 기독교 말살을 꾀하였다. 특히 태평양전쟁이 점점 불리하게 되면서 기독교의 세력을 의식하여 이 무서운 적을 속히 말살하기 위하여 1945년 8월 17일, 바로 해방되던 날 이틀 후에 전국 교회 지도자들을 사상이 불온하다고 하여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명단 작성과 살해 방법을 강구하던 중 8·15해방을 맞이 함으로 이 계획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면 왜 일본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가? 투옥되거나 합구령, 또는 금족령이 내려 실제 활동을 억제당했던 교회지도자들이 지하에 숨어서 신앙운동과 민족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제하에서 기독교인의 방법은 어떠했는가?

첫째 적극적면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행동적 항쟁에 앞장섰다.

종교인이 신념을 갖게되면 그 신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종교의 모든 것을 없애야 할 것이다. 항일투쟁을 벌인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 조국의 운명을 근심하며 혁신운동을 진행한 인물들을 보면 1894년 배재학당을 졸업하자 그 학교의 교사가 된 이승만, 1887년 언더우드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1892년 언더우드신학반을 수료한 홍정후, 중국으로 망명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최고학부를 마치고 1895년 귀국한 윤치호, 평양에서 활동한 안창호, 정주에서 활동한 이승훈 등, 그리고 평양의 대성학교와 정주의 오산학교는 처음부터 항일투쟁을 목적으로 세운 학교였고 평양의 숭실학교와 선천의 신성학교는 기독교 중에서 가장 배일사상이 뚜렷한 학교였다. 이 숭실학교학생을 중심으로 비밀결사가 결성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국민회'로서 이 국민회야말로 기독교 단체로서 유일무이한 무력항일의 단체였다. 이와같

이 기독교인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강한 항일사상을 품고 있었으며 기회만 닿으면 언제든지 독립운동을 펼 마음의 태세를 단단히 갖추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킬 정신적 기반이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나 평신도들에게 항상 마련되어 있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는 독립청원운동이 아니라 독립선언에 대한 축하 만세와 같은 성격의 만세 시위였다. 이 만세 시위는 교회의 어떤 기관(총회, 노회, 시찰회, 당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한 사람, 곧 개인의 자격으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중 16인이 기독교인으로 길선주, 이승훈 등이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겠다.

이 적극적 행동투쟁을 하는데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은 '기독교'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항하였다는 것이다. 기독교를 앞세워서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뒤에 놓고 대항하였던 것이다. '조선국민회' 외에는 기독교 단체로서 무력으로 항쟁한 단체는 없었다. 그 외의 모든 투쟁은 국민의 자격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방법도 역시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가 결코 항일투쟁을, 독립군되는 것을, 만세운동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한사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토록 하였다. 그래서 3·1운동비사(三一運動秘史)에는 "예수 믿는다는 말과 독립운동에 참여한 애국자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기독교 밖에서 존재한 사람들은 "기독교는 소극적이며 기껏해야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 박해에만 투쟁했다"고 말한다.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우리가 일제하에서의 불교·천주교의 투쟁을 밝힐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기독교 자체의 투쟁을 뚜렷하게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의 결과에서 요소요소마다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인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 않은가. 언제부터 우리의 의식속에서 모든 것을 종교자제로 구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는가. 국가적 수난에 대한 애국적 행동을 할 때에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내세워야만 하는가.

기독교는 배후에서 애국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나라를 잃고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나라, 민족, 백성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적 수난을 당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느 누구 못지 않

게 항쟁의 최전선에서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둘째로 소극적인 면에서 신앙부흥운동에 전심전력을 다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극적인 면'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적극적인 면'으로 바뀌어야 할지 모르겠다.

민족의 수난은 잠시 교회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한국교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나라는 물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앙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내일 나라의 해방이 된다고 해도 오늘 죽어가는 생명에겐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필요했다.

1907년 길선주목사 등이 중심이 되어 회개통곡의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 길목사를 통해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7만명이며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새로 설립된 교회가 백여군데였다. 우리 교회는 1907년 부흥운동 이후 우리 민족의 현실적 수난은 우리 민족의 양심적 부패, 민족적 무지에서 온 비극적 결과임을 자각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서 교회는 양심의 회복과 자유, 민족의 자각과 계몽운동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우리 국민은 한일합방 이후 일본에 대한 통분과 불만을 깊이 품게 되었다. 그러한 통분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새 감격과 새 힘을 얻으려고 하였고 교회에 들어와 자주성과 자존심을 되찾으려고 애써왔으며 또한 동족사이에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민족애와 새로운 지혜를 찾으려고 하였다.

1920년대에 김익두목사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전개되었다. 1920년 5월 17일부터 부산진교회에서 1주일간 부흥회를 모였는데 신유의 은사로 많은 병이 김두수를 일으켜 세우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각 지방에서 22명을 전부 낫게 하였고 18명은 반이나 낫게 하였다는 것이다. 창조적 신앙과 십일조 강제로 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익두목사는 자신은 십이조를 내며 부흥회 인도때는 꼭 금식하며 인도하였다.

총독부가 강력한 조직과 사상과 정신의 요람지인 교회에 강압을 세웠을 때 교회는 항상 놀라운 창조적 신앙으로 이 횡포에 맞서 싸웠던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세세요한, 혹은 한국의 엘리야, 그리고 한국이 낳은 무더선생이라고 불리운 김익두목사의 영적운동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김익두목사의 부흥운동에 크게 회개하고 돌아온 목사들 가운데는 신사참배반대로 순교한 주기철목사와 성경교

회 이성복목사 등이 후계자가 되어 부흥운동의 불을 붙인 것 등은 1910년대의 부흥운동의 큰 영향이라고 지적 할 수 있다.

길선구목사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김인서목사는 “선생이 나오신 근세 조선에 위인이 있고 선생이 기독교에 개종하시며 조선교회의 기초가 서고 선생이 1906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매 세계의 새벽기도가 시작되고 선생이 1907년에 성신의 불을 받으시매 천하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라고 말했다.

또한 김양선목사는 김익두목사와 길선주목사를 가리켜 “그들은 한국교회에 새빛과 희망을 주었고 한국 사회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불러 일으켰다”고 했으며 그들의 외치는 소리 중에 “진리는 승리한다”는 말은 “절망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했고 모진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의 비밀을 터득하게 되어 일제의 잔악한 정치풍토 밑에서도 저항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자체에 대한 박해에는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순교로 투쟁하였다. 더 나아가 국가적 항쟁에서 이 신앙적 부흥운동은 기독교인이거나 비기독교인들의 투쟁에 있어서 하나의 기쁨 역할을 했다. 신사참배 등을 반대하여 홀린 믿음의 선배들의 피 또한 해방을 가져오는데 촉매역할을 했다.

기독교인에게는 행동적 투쟁방법만이 모두가 아니다. 하루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면서 신앙

적으로 장기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공산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지하교회를 통해 자신들의 영적영양을 공급받고 있으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데 나라가, 또는 박해자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항해야 한다. 어떤 때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어떤 때는 기독교인으로…… 또한 외적으로 항쟁에 몰두하면서도 우리는 결코 내적으로 신앙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 양면을 정반대로 놓고 하나는 말고 하나는 틀리다고 해서도 안된다. 일제하의 국민들에게 기독교는 애국심을 불어 넣었으며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것을 밑받침으로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은 외적으로 항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아직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유대인과 같이 행동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수난을 당하든지 안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시킴으로 먼저 내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아가야 하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올 때는 순교적 정신으로 항쟁해야 하며 국가적 수난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항쟁하여야 한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충현의 모든 성도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으며 똑같이 힘써야 합니다.

-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가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교회 전체나 각 지회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25년전 오늘의 중현교회당을 지을때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마음과 힘을
합하였다.)

광주시민 위해 특별기도

총회장 한석지목사는 「금번 뜻하지 않았던 광주사태로 인하여 교회와 교인들이 입은 피해도 큰바, 이를 위하여 전국교회가 기도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일차 헌금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한국기독교 지도자 협의회(회장 장성칠목사)도 광주사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전국 교회들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NCC(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 강원용목사)와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조원근목사), 그리고 KCC(한국예수교협의회 회장 강용조목사)도 이와 비슷한 기도협조를 당부했다.

성경 2천6만3천4백권

대한성서공회 성서위원회는 79년도 1년간에 우리말 성경이 2천6만3천4백권이 반포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오전 9시30분 동회 회의실에서 가졌던 제53회 정기총회는 지난회기의 사업·결산 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새해기(80년도)의 예산 및 성경반포계획을 심의, 인준시켰다.

새해기 성경반포에 필요한 예산액은 36억 3천 3백여만원이며, 새로운 임원진이 전형위원회에 의해 선출되었다.

회장 김해득, 부회장 지원삼, 서기 이재은, 회계 김영선, 실행위원 박치순, 김재창, 이봉성, 김관석, 이천환, 재단이사 김관석, 박치순, 이봉성, 사모덕, 감사 이환수, 이용실.

「재림예수」 또 등장, 구속

한국 종교연구소(소장 김종일)는 최근 사회혼란을 틈타 사이비

종교의 허무맹랑한 선전이 나돌고 있다고 지난 5월14일 전국교회에 보내는 성명서에서 밝혔다.

동 성명서에 의하면 경남 마산시 회원1동 65의 73에 소재한 천국복음전도회(교주 최종일)가 「재림예수 세상심판」이란 포스터를 전국 중요도시에 우송하거나 거리에 부착하고 있다는 것.

종교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천국복음전도회는 「구인회」를 1대 교주로 하나님이며 「재림예수」로 자칭, 사이비 교단을 구성한 후 1973년 12월 5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예언했다가 불발에 그쳤고 5만원, 10만원씩에 「천당행표」를 팔았었다.

「천당행표」를 팔던 사이비종교가 부환(?)한 것은 78년 5월 현교주(최종일)가 「재림예수(구인회)는 왜 옥중에서 죽었는가?」라는 유인물을 발행, 사망한 교주를 성인화하고 그의 영혼을 자신이 받은 선지자라며 지금도 천국행표 판매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 종교의 신앙행위중 흥미있는 것은 「태극기가 하나님의 본체」이며, 「십자가는 우상」이라고 비방, 태극기를 신주(神主)로 모시는 것과 천국과 지옥은 한국땅에서 이뤄진다고 주장하는 것.

한편 국제종교문제 연구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교주 최종일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의로 지난 5월 30일 구속되었다고 한다.

해외선교에 주력다짐

총회 선교부가 주관한 제3회 선교 세미나가 「만민을 위해 복음의 기를 들자」란 주제로 필립핀 선교회관에서 지난 5월21일~24일까지 개최되었다.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마련된 동 세미나는 저녁 특별집회를 한석지총회장, 김창인목사, 조해수목사들이 맡아 설교했고, 특강을 맡은 김의환목사는 「한국교회 선교의 당면과제」란 주제의 발표에서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이 세는 해외선교에서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80세계복음화 여교역자 단합기도회

80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예비하고 모든 준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교역자 단합기도회가 5월26일 오전 7시30분 한국대학생선교회 현숙기도실에서 개최되었다.

서울 및 경기지역의 여교역자 3백50여명이 참석하여 시종 진지하고 뜨거운 분위기에 진행된 이번 모임은 비상시를 당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개인과 교회가 다 참회 기도 및 성령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을 다짐하였다.

서울「경찰」에게 복음

서울시경산하 각 경찰국의 경목수련회가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 8군수령관에서 개최되어 특수 선교자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경찰복음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78명의 경목이 참가한 동 세미나에서 강연을 한 박선희목사는 「모처럼 주어진 경목사업의 사명을 맡아 경찰관들의 정신교육에 앞장서며 경찰이 복음화 되도록 힘쓰며 복지국가를 이루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자」고 역설했다.

한국 교회에 요나가 요구되는 시대

오 태 용

역사는 주의 백성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이기 때문에 각국의 한국 사태를 크리스찬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대처하는 것은 크리스찬 지성의 역사적 사명이다. 해방의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6·25의 비극이 하나님의 징계일진대 오늘 의 불행한 현실은 누구의 잘못에 기인한 것인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거나 어느 위정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한국 교회의 책임이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고모라가 증거해 준다.

하나님의 축복인 7백만 성도를 가지고 한국 교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7백만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였다. 특히 갈 길을 제시해야 할 교계 지도층의 눈이 멀어 버렸다. 교단이 갈라지고 파벌과 지방색이 지배하였다. 주의 종들이 거짓말을 예사로 하였다. 불법을 자연스레 행하였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 뜨거운 전도열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였다.

순풍 가운데 다시스로 갈 수 있었던 배가 사나운 풍랑을 만난 것은 범칙한 요나가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불안정과 팽배한 불신감은 먼저 믿은 7백만 성도의 책임이다. 불신자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성도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연고이다. 다시스행의 배가 사는 길은 선지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풍랑 만난 한국의 살 길이다. 패역한 한국 교회가 요나의 양심을 회복하여 참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는 것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인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주의 종들은 산속으로 들어가라. 모든 신학생들은 숲 속으로 들어가라. 모든 평신도들은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이 땅의 7백만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 이웃 형제를 붙들고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빌라.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확립하라. 마침 6월은 전도의 달이다.

예수의 사랑함과 (413장)

예수의 사랑함과 그 크신 은혜를
고하고 전파함은 즐거운 일일세
왜 좋아할꼬 하니 이 말은 진리요
내 맘의 빈궁함을 풍족케 할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예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송하기 참 기쁜 일일세

이 찬송은 금년도 우리교회가 주최하는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과 평신도 초청훈련의 주제 찬송이다. “말씀 위에 굳게 서자”(시119:89)라는 말씀과 아울러 이 찬송을 주제 찬송으로 택하게 된 것은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역자들과 700만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힘있게 전파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이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만 즐거움을 삼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 본 일이 있는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아무쪼록 이 찬송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란다.

본래 이 찬송은 행키(Arabella Katherine Hankey, 1834-1911)가 쓴 50절이나 되는 “들은 이야기들”(The Story Told)이라는 긴 시에서 발췌하여 1866년 11월 18일에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 찬송이 성도들의 입에서 불려지기는 1869년 피쉬(William Gustav Fischer, 1835-1912)가 곡을 붙임으로 시작되었다.

이 찬송은 4/4박자와 내림가(A^b Major) 장조의 곡으로 아주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주는 경쾌한 찬송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행5:42)는 말씀에 의지하여 쓰여진 찬송이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있게 전파하여 나와 내 가정과 우리교회와 민족이 복을 받는 일에 충성을 다하자!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성경학원지도)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5월중에 들어 온 도서 —

1. 구입도서

1. 주석류

- 1) 플릿성경주석: 이사야 상·하, 시편중 하, 잠언, 전도서, 아가서, 플릿성경주석, 번역위원회편, 1980.

2. 전도학

- 1) 현대선교신학의 동향; 앤더슨제롤드 H. 스트란스키 토마스 F 공저. 서정운, 손병호공역. 장로회신학대학 선교문제연구원, 1980. 316 P. 22cm
- 2) 아세아와 선교; 마상락저. 장로회신학대학 선교문제연구원, 1976. 2767
- 3) 기독교선교사; 니일, 스티븐저. 홍치모, 오만규공역. 성광문화사, 1979. 315 P. 22cm.

3. 조직신학

- 1) 초대교회 생명력; 바클레이저 서기산역. 기독교문사, 1978. 194P.
- 2) 성령의 약속; 바클레이저. 서기산역. 기독교문사, 1978. 217 P.

4. 실천신학

- 1) 실천신학개론; 정성구저. 종신대출판부, 1980. 439P. 22cm

5. 역사

- 1) 동아연감; 동아일보사, 1980. 26cm
① 별책 1 - 일지, 통계, 자료 제 3 공화국 연표. ② 별책 2 - 인명, 기관단체록.

6. 설교집

- 1) 마태복음 I, III. 스필전, C. H 저. 장수환역(I), 장부영역(III). 보문출판사.
- 2) 마가복음; 스필전, C. H 저. 장부영역. 보문출판사, 1979.

7. 교육학

- 1) 하나님의 말씀; 조용기저. 영산출판사, 1980. 256P. 21cm.
- 2) 섬기는 종 예수그리스도; 마가복음 공부; 대학생성경읽기회(SBF). 성경읽기사, 1980.

B. K. Kuiper 저 김해연 옮김

세계기독교회사

성광문화사 · 1980 · 483 페이지 · 5,000원

교회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오만 했던 유산이므로 우리들에게 강한 흥미를 준다.

이책은 대부분 최상의 극적 삽화로서 된 역사로서 교훈적이며 고무적이다.

저자 Kuiper 교수는 이 방면에 연구와 탐색에 심취하여 탁월한 교수 능력을 가진 분으로 경험의 결정으로 본서 "교회사" (The Church in History)를 내놓게 되었다.

그는 이 책을 씀에 있어서 풍부한 배경에서 인용하였고 삽화를 많이 넣어 실감있는 이해를 주는데 도움을 주며 학생의 필요와 일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집필 하였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예루살렘의 한 회중에서 많은 지역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이 된 발전을 볼 것이다. 교회의 수효와 지역에서 자람에 따라서 조직과 행정의 형태로 발달 하였다.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터 교회는 핍박을 받기 시작 했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며 다음은 이방인들에게서였다. 교회가 이러한 박해로 부터 어떻게 구출을 받으며 어떻게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 되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초대 교회 당시에는 북방의 야만족의 큰 침입에 저항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들은 큰 로마 제국의 존략들과 도시들을 약탈하고 정부를 전복 시켰다.

이 책 첫 부분의 끝에서 우리는 교회가 엄청난 기독교회의 움직임과 새로 건설된 야만 왕국들을 교육 하는것을 볼 것이다.

"카나다 교회"에 대해서도 첨가 하였고 종파(宗派)들의 역사적 발전들을 한단위로 넣었다.

이는 모두 근래의 사건들이고 본문과 상관있는 새 지도들을 그려 넣었다. 그림의 선택이 광범위하고 매장 끝에 제시한 질문들과 제안은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본문 내용과 관련된 의미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함에 보탬이 될 것이다.

장 영 자 전도서 <성경학원 부지도>

지난 4월 6일자 이스라엘의 영자신문인 예루살렘포스트(the Jerusalem post)지의 통계 발표에 의하면 1980년 3월말 현재 이집트의 인구는 4천 2백만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수도인 카이로시의 인구는 8백 72만 4천명으로 보도되었다. 이들 중 기독교 신자는 국민 전체의 약 10%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들 크리스찬의 대부분은 이른바 애굽 정교회(the coptic orthodox church)기독교인들인 것이다.

사실상 애굽 정교회는 그 예배의식이나 교리면에 서 구교인 로마 카톨릭교회와 거의 흡사하다.

러가지 질문을 하여 오기도 하였다.

1. 제90차 나일대회 (Synod of the Nile)

이집트 복음주의 교회는 아직 총회(the General Assembly)가 조직되지 못한 교단이다. 현재 카이로 노회, 중부이집트노회 등 모두 8개의 노회(Presbyteries)를 가진 교단으로서 이 교단의 최고기구가 대회(Synod)인 것이다. 나일대회(Synod of Nile)가 그런 것이다. 제90차 나일대회가 지난 5월 5일에서 9일까지 만 5일간에 걸쳐 이곳 카이로에서 모였다. 필자는 이 교단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선교사

애굽 복음주의 교회와 나일대회

이 준 교 목사

(주 애굽 선교사)



물론 이집트에는 개신교(the protestant)가 있다. 그러나 그 수는 그리 많지 못한 것이다. 개신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며 큰 교단이 애굽복음주의 교회(the coptic Evangelical church)이다.

애굽복음주의 교회는 선교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는다. 금년이 선교 125주년에 해당한다. 교회당 수는 상하 애굽(Upper and Low Egypt)을 통틀어 약 200교회, 신도수는 출잡아 7만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교역자(목사)의 수도 역시 거의 200명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카이로시에는 24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있다. 그 중에서도 카이로의 서북부 지역인 쇼브라(Shoubra)구역에 집중적으로 교회가 많이 모여 있어 마치 그곳은 기독교인 마을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쇼브라지역에 7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있다. 상당히 큰 교회들이다.

필자인 이 선교사는 이곳 쇼브라지역을 수차 방문한 바 있다. 지난 4월 27일 주일 저녁에는 이곳 쇼브라지역에 있는 엘 샤르히아(El-Sharkhia)교회(볼로스 시드한(Baulos Sidhan)목사 담임)에 초청을 받아 저녁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 교회는 장년 500명 정도 모이는 상당히 큰 교회이다. 필자인 이 선교사가 그날 밤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소개 하였다. 한국교회 현황과 성도들의 신앙 열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관심과 감탄을 하면서 여

의 자격으로 이번 나일대회에 참석하여 그들의 회의를 시종일관 지켜 보았다. 이번 대회가 모인 장소는 카이로시 쇼브라지역의 쇼브라 복음주의 교회(아야드 자하리(Ayad Zakhary)목사 담임)였다.

5월 5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개회 예배는 파갈라교회(Faggala Evangelical Church)에서 드리고 그 익일부터 나흘동안 회의는 쇼브라 교회에서 진행 하였다. 개회예배에 이어 신임 대회장(the president of the synod)을 선출, 미니스 압델누르(Rev. Minis Abdelnour) 목사(카이로시 엘 도바라 교회 담임목사)가 1년 임기인 신임 대회장에 선출되었고, 이어서 외국 선교사들의 인사 소개 순서가 있었다.

박수갈채로 환영하는 간단한 순서였다. 그날 저녁 대회에 참석한 외국 선교사는 필자인 이목사를 포함 모두 3명 뿐이었다. 미국 정통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현재 알래스칸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두 분과 그리고 필자인 이목사가 모두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5월 6일에는 독일인 선교사 한 분, 그는 남부 이집트 아스완(Aswan)에서 활동하는 분이다. 이 참석하여 소개를 받았고 또 제 3일째인 5월 7일에는 미연합장로교회 소속 선교사 6명이 참석하였던 것을 보게 된다. 이상이 거의 전부이다. 그 이외에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인도 등의 나라에서 각각 한명씩의 선교사가 들어와 개별적으로 활동

하고 있으나 그들은 이 대회에는 한사람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평신도 선교사로서 예컨대 간호원 혹은 교사로서 이곳 병원이나 학교 혹은 기독교 사회사업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것이다. 이들은 거의가 다 미연합장로교회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들이었다.

2. 나일대회의 주요의제

이번 제90차 나일대회에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주로 토의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애굽 복음주의 교회 교단총회(the General Assembly of the Coptic Evangelical Church)조직에 관한 의제였다. 총회 조직을 위하여 현재의 나일대회를 둘로 나누자고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하나로 되어 있는 나일대회를 둘로 나누어 또 다른 하나의 대회를 조직하자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놓고 장시간 의견들을 진술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결정은 내리지 아니하고 연구과제로 하고 넘어간 것이다. 비록 금년에는 실현이 되지 아니하고 넘어 갔으나 이는 이집트 복음주의 교단으로 볼 때는 상당히 발전적인 움직임의 하나로 받아 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를 카이로에서 개최하자고 하는 문제가 논의 되었다. 그 범위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 짓지를 아니한 것 같다.

세번째의 의제는 신학교 문제였다. 이 교단 산하에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다. 이 신학교는 실질적으로 개신교회 전체의 유일한 신학교이다. 이름만 있고 학생이 한명도 없는 신학교가 한 두개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학생 없는 이름만의 신학교이고, 그러나 이 교단 신학교는 4년제 정규코스(주간반) 학생이 약 30명 정도된다. 그리고 야간반(evening class)도 있다. 이 야간반은 일명 성인반이라고 해도 좋을 텐데 직장인으로서 저녁에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도 역시 그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대학을 마친 성인들이다. 그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의사, 군인, 영관급 장교, 대학교수 출신도 있다고 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신학을 마친 다음에도 계속 직업을 가지면서 평신도로 교회를 봉사하는 자들이고 그들 중의 어떤 이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이집트의 복음주의 신학교 학생(정규코스)들에게는 일체의 등록금이 없다. 전원 장학생들이다. 물론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일체의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매월 일정액의 잡비(용돈)를 지급하여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논의된 것 중의 하나는 이들 신학 졸업생들이 신학을 마친 다음에 농촌교회로 나아가기를 싫어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농촌교회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모든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200여 교회 가운데 농촌에 있는 상당수의 교회에는 아직 교역자가 없는 실정이다. 한 교역자가 두 군데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와같은 경우의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이외에 논의된 문제로는 교단 기관지인 호다지(紙)의(the Huda; 이는 안내자란 뜻이다.)

내용 충실화 문제와 주일학교 교육문제 그리고 은퇴 교역자 생활보장문제 등이 이번 대회기간 동안에 주로 논의된 바 있는 것이다. 대개 이상과 같이 애굽 복음주의 교회의 현황 개요와 그리고 제90차 나일대회 소식을 대강 전하여 드리면서 충현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3월부터 본 애굽주재 한국 선교부에서는 여덟군데의 애굽 농촌 지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교회들은 너무 어려운 교회들인 것이다. 여기 그 명단을 소개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다.

- 1) 엘 베르시(El-Bersh) 교회 - 말라위(Malawi) 지역
- 2) 엘 골프(El-Golf) 교회 - 말라위(Malawi) 지역
- 3) 델 엘 가르노스(Der El-Garnous) 교회 - 중부이집트지역
- 4) 마스라(Masra)교회 - 아슈트(Assiut) 지역
- 5) 바히그(Bahig) 교회 - 아슈트(Assiut) 지역
- 6) 슈빈느엘콤(Shbin El-kom) 교회 - 삼각주(Delta) 지역
- 7) 엘 아디마(El-Adaima) 교회 - 상부 이집트지역
- 8) 샤라라(Sharara) 교회 - 미니아(Minia) 지역

앞으로 더 많은 교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역자가 없는 애굽 농촌 교회의 굶주린 영혼들을 위하여 현직인 전도인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일을 계속 추진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한 성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월보

선교월보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인도네시아-서 만 수 선교사 외 가족 3명

1. 개척지 답사: 4월 11일 자카르타 서부 자바의 접경지대인 치랑갑지역에 교회 설립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 부활절예배및 성례식 거행: 자카르타 한인교회는 80년도 부활절예배와 성례식을 거행했다. (학습: 4명, 세례: 2명)
3. 연장수속완결: 80년도 체제를 위한 수속이 무려 5개월간에 걸쳐 완결됨
4. 부교역자 초청건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
5. 오지지역 현황

- ① 골로교회: 장년 2명, 유아 3명 결신
- ② 수코레조교회: 유아 3명 결신
- ③ 위노사리교회: 장년 1명 결신
- ④ 두꾸말릴교회: 장년 1명 결신
- ⑤ 뿌충교회: 장년 1명 결신
- ⑥ 수다모토교회: 장년 1명 결신
- ⑦ 숨비레조교회: 장년 2명, 유아 5명 결신

* 기도제목 *

1. 부교역자 선정문제를 위하여
2. 오지지역의 지속적인 결실을 위하여

홍콩-홍 중 만 선교사 외 가족 6명

1. 중국에 보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많이 보내 주셔서 현재 재고가 많이 있음.

가능하면 영어사전, 각종 영어공부교재, 일본어교재 등 일반서적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

2. 오랫동안 편지왕래 중에 있던 할빈에 계시는 한 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왔다.
3. 홍콩한인교회는 지하철공사 취업자의 급증으로 인해 주일예배 장소관계로 곤란을 겪게 될 정도라고 한다.

4 중국의 일부지역에서는 한인성도에 대한 선교를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관계로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중국선교에 신중을 요하는 경중이라고 할 수 있다.

* 기도제목 *

1. 중국의 한인선교의 미래를 위하여
2. 부교역자 파송을 위하여

애굽-이 준 교·김 신 숙 선교사 외 가족 모두 6명

1. 선교비 4월분 받음.
2. 애굽복음주의 신학교의 신학생 5명에게 고이연호선교사 기념장학금 지급 및 기념도서물고를 설치 중에 있음.
3. 원주민교회 8군데를 지원하고 있음.

— 교 회 명 — — 지 역 명 —

- | | |
|------------|--------|
| ① 엘 베르쉬 | 탈라위지역 |
| ② 엘 골프 | 탈라위지역 |
| ③ 델 엘 가르노스 | 중부 이집트 |
| ④ 마스라 | 아슈우트지역 |
| ⑤ 비히그 | 아슈우트지역 |
| ⑥ 슈빈느 엘 콤 | 삼각주지역 |
| ⑦ 엘 아더마 | 상부 이집트 |
| ⑧ 샤라라 | 미니야지역 |

4. 특별기도요망

무슬렘교도들의 기독교인 핍박이 심해 몇개지역에서 살인, 납치, 예배제재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기도제목 *

1. 두 선교사 가정을 위하여
2. 애굽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서독-육 호 기 선교사 외 가족 3명

1. 부활절연합예배 - 4월 6일 오후 1시 비스바덴교회에서 3교회 연합으로 150여명이 부활절 예배를 드림-어린이의 특별찬양과 야고보서 전장암송 등의 특별순서가 있었다.

2. 다름슈타트(Darmstadt) 순회예배 실시, 4월 23일 비스바덴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으로 매주 수요일 구

역에배를 드릴 예정임.

3. 바드키친겐(Bad kissingen) 순회에배 실시 4월 24일 뷔츠부룩에서 약70km 떨어진 곳으로 매주 목요일 구역에배를 드릴 예정임.

4. 부흥회연기: 4월16일부터 20일까지 부흥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강사목사의 사정에 의해 독일에 도착 못해 연기하기로 함.

*** 기도제목 ***

새 교회의 부흥과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호주 - 김 태 현 선교사 외 가족 4명

멜본한인교회 계속 시무중

자세한 공한 아직 미착

*** 기도제목 ***

1.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앞으로의 현지선교를 위한 준비를 위하여

아르헨티나 - 백 성 롱 선교사 외 가족 4명

재아중앙교회 계속 시무중

자세한 공한 아직 미착

*** 기도제목 ***

1. 교회의 계속적인 부흥을 위하여
2. 목사님과 온 가족을 위하여

일본 - 유 병 세 평신도선교사 외 가족 4명

1. 사모님 이윤호권사 일시 귀국중이심

2. 병원 및 가두전도 계속중

*** 기도제목 ***

1. 유선교사의 건강을 위하여
2. 일본선교를 위하여

서독 - 박 용 삼 평신도선교사 외 가족 2명

1. 기독교진리에 대해 실상 아는 바가 없는 유럽인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있느냐고 반문한 정도로 의아하게 여긴다고 함.

2. 유럽인들의 신앙은 1년에 한 두번(부활절, 크리스마스)교회에 나갈 정도로 거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다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한다.

3. 대학교 신학강의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강의는 몇 백명이 몰려드는데 선교신학 강의에는 불과 몇 십명 정도로 선교가 독일교회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지는 이미 오래라고 한다.



(중국의 가정교회 - 찬송을

종이 쪽지에 적어서 사용하고 있다.)

*** 기도제목 ***

유럽의 순수한 복음선교를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 - 엘리야 겔간선교사

1.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기도하고 있음.
2. 5월 5일~8일 K·E·F(카시미르복음주의협회) 선교사세미나에 참석
3. 5월17일~19일 평신도지도자세미나에 참석.
4. 5월18일 『스리나가르』(Srinagar)에 있는 유일한 교회(그동안 폭도들에 의해 소실되었음)를 개축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기로 하였음.
5. 6월중에 라다크(Ladakh) 지역의 전도를 위한 답사예정 - 기도요망

*** 기도제목 ***

1. 티베트언어 습득을 위하여
2. 카시미르와 라다크의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본부 - 해외복음선교회

*** 기도제목 ***

1. 선교행정의 전문화가 되도록
2. 선교자료실 설치를 위하여
3. 선교후보자 훈련센터 건립을 위하여
4. 선교저 확장을 위하여
5. 선교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5월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지구

삼 선 구 역	김애자	성북구 삼선동 1가 9번지 1호, 8/1
삼암 ①구역	설경수	도봉구 수유동 48-22, 4/2
광희 ①구역	이문기	중구 을지로 5가 107, 27/6
동 송 구 역	유한기	종로구 동송동 129-216, 8/4
창신 ①구역	김동식	종로구 창신동 23-443, 19/6
창신 ②구역	박로순	종로구 창신 3동 23-554, 19/8
광희 ①구역	박명준	중구 광희동 1가 77-2

• 2지구

행 당 구 역	최 욱	성동구 행당동 1가 115-10
암 사 구 역	이수영	강동구 암사동 암사아파트 32동 506호
구의 ①구역	유호준	성동구 구의동 223-27, 12/6
망 우 구 역	박현범	동대문구 망우동 1가 183-11, 19/2
면목 ③구역	고은주	동대문구 면목 7동 655-3, 5/3
홍 익 구 역	이명자	성동구 광현동 522-3, 8/5
송 정 구 역	김윤화	성동구 군사동 60-85
마 장 구 역	김종곤	성동구 용답동 135-21, 2/5
태 능 구 역	배현숙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호령리 205
장 안 구 역	신은선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아파트 91동 106
답십리구역	유옥자	동대문구 장안동 265-20, 24/4
태 능 구 역	김복녀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호령리 205
도 선 구 역	이명준	성동구 홍익동 258-13, 6
암 사 구 역	나삼여	강동구 암사동강동아파트 13동 201호

• 3지구

강남 ①구역	지갑진	강남구 우면동 205-2
강남 ②구역	송 순	강남구 서초동 90-1
잠실 ③구역	우명자	강동구 잠실 2동아파트 207동 314호
옥수 ①구역	최연례	성동구 금호동 4가 848-4, 26/7
금 호 구 역	김용선	성동구 금호동 1가 1653, 5/2
보 광 구 역	유춘희	용산구 한남 2동 장미아파트 309호
청담 ①구역	이동식	강남구 학동 35-15, 4/4
강남 ④구역	문병양	강남구 반포동 296, 7-12
화 양 구 역	고승균	성동구 화양동 20-21
옥수 ①구역	최병렬	성동구 옥수동 7-207, 16/4
청담 ①구역	김정희	강남구 청담동 67-56, 2/4

자 양 구 역	김선구	성동구 자양동 330-1
시영 ①구역	강명숙	강남구 잠실시영아파트 18동 5층 1호
목정 ②구역	임형진	중구 목정동 30-20
논현 ②구역	이금선	
논현 ②구역	민의식	강남구 논현동 127-13

• 4지구

반포 ①구역	전명옥	강남구 반포동반포아파트 63동 510호
반포 ①구역	박성애	강남구 반포아파트 84동 405호
정 파 구 역	김정자	용산구 청파동 1가 1-4, 9/6
불 전 구 역	김행심	관악구 봉천본동 102-118, 33/7
인현 ①구역	이경화	중구 필동 1가 3-17, 15/1
대 방 구 역	박인영	관악구 봉천 1동 435-1, 9

• 5지구

신 촌 구 역	김명숙	마포구 아현동 348-5, 26/1
신 촌 구 역	최현주	마포구 아현동 343-6, 23/5
신 촌 구 역	양한주	서대문구 북아현동 1번지 958, 20/3
을지 ②구역	박순자	중구 을지로 5가 19번지 14호
충무 ①구역	최현호	중구 충무로 5가 2-4
중 부 구 역	양진호	중구 을지로 5가 272-6
동 교 구 역	조금복	마포구 합정동 378번지, 10/1
초동 ①구역	김성한	중구 을지로 3가 347-7
남 가좌 구역	김성남	서대문구 남가좌동 346-12, 22/1
망 원 구 역	황명희	마포구 망원동 399-5
약수 ③구역	최강진	중구 신당동 432-107, 12/4
미아 ①구역	김인철	도봉구 미아 4동 136-66
역촌 ②구역	이영일	은평구 대조동 53번지, 7/2
응암 ①구역	주희선	은평구 신사동 134-1
공 항 구 역	김태현	강서구 공항동 19-12, 4/9
망 원 구 역	김주영	마포구 망원동 404-38, 10/3
목 동 구 역	김혜진	강서구 목동 101-202 한라주택

* 축하합니다. (5월중 결혼)

- 안희정군과 박임순양(이태원구역) 5월3일 오전 11시 영빈관에서
- 김철순양(황광면씨 딸, 유치부교사) 3일 오후 2시 용 두동 감리교회에서
- 이승근군(이재기집사, 구명신전도사 장남) 5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김남순양(이재출집사 딸) 5일 12시 행복에식장에서
- 김용대군(김정례씨 아들) 5일 12시 종로에식장에서
- 윤병호군(용문구역)과 박혜원양(박창수장로, 원옥순 권사 딸) 10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김창일양(제1성가대원) 10일 오후 3시 고려예식장에서
- 김종률군(유년부교사)와 김혜숙양(초등부교사) 12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정원근군(변철순권사 아들)과 이애영양(유치부교사) 13일 오후 1시 본 교회당에서
- 정희순양(서양순집사 딸) 13일 오후 1시 영락교회당에서
- 한승봉군(한영기집사 아들) 13일 오후 3시 종로예식장에서
- 이영혜양(권명선집사 딸) 14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박태규군(안소현집사 아들) 17일 오후 3시 본 교회당에서
- 추원식군(제일성가대원) 17일 오후 4시 YWCA에서
- 이영훈군(재미 이종율씨 아들) 19일 오후 1시 본 교회당에서
- 김정균군(이봉남권사 아들) 19일 오후 4시 엠베서더 호텔에서
- 이석환군(문명애 집사 아들) 22일 12시 타워호텔에서
- 우순애양(후암구역) 23일 오후 1시 후암교회당에서
- 정상태군(박말수집사 아들) 24일 오후 1시 본 교회당에서
- 손재삼군(중곡구역)과 백민정양(유년부교사) 24일 오후 2시 본 교회당에서
- 신경옥양(이순애권찰 딸) 24일 오후 1시 서소문 교회에서
- 하경희양(하대선집사 딸) 30일 오후 2시 영빈관에서
- 박현옥양(방계운권사 딸) 30일 오후 1시 엠베서더 호텔에서
- 한영일군(한명옥장로, 이봉재권사 아들) 31일 오후 2시 본 교회당에서
- 전원애양(전희경씨 조명녀집사 딸) 31일 오후 3시 본 교회당에서

*위로드립니다. (5월중 별세)

- 박용주권사(이태원구역) 1일 별세 3일 장례
- 방호열씨(백복업권사 모친) 1일 별세 3일 장례
- 노공임씨(안암구역) 15일 별세 17일 장례
- 박종원씨(임경자집사 시부) 15일 별세 17일 장례
- 김희림씨(이키분집사 모친) 21일 별세 23일 장례
- 김치선씨(김영숙집사 부군) 22일 별세 24일 장례

* 권찰수첩 *

구역원의

신앙지도 지침 (1)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구원 받은 성도들은 성경과 떠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 성경을 떠나서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으며 복된 생활을 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장로교 신조 제 1조에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한가?

1.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것처럼 그의 말씀도 역시 중요한 것이다.

1)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 1:1~31, 사 45:12, 고후 5:17)

2)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창 3:15, 요 3:16, 5:39).

3) 인류 심판의 표준이 되는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이다 (마 25:14~30, 히 4:12~13, 제 20:11~12).

4) 신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무엇인가?

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딤후 3:16)

② 예수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요 20:31)

③ 통일성 있게 예수그리스도만을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로 증거하기 때문이다. (사 34:16, 요 5:39)

④ 예언 하신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아서 (마 1:23)

⑤ 변하지 않는 불변성 때문이다. (마 5:18)

⑥ 문제해결의 지침서가 되기 때문이다. (롬 7:7~8:2)

⑦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친히 증거 하셨기 때문이다. (마 5:17~18)

김 재 창 목사 (심방위원회위원장)

정상우·김종택목사 사임

강봉선전도사도

그동안 우리 교회 부목사로 수고하여 오신 정상우·김종택목사와 강봉선(여)전도사가 각각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였다.

정상우목사는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며 후암제일교회 당회장으로 가시게 되는데 정목사는 1971년 2월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어 구역심방을 담당하며 청년부지도, 월간총현원집위원 및 주간, 출판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1977년 이후 현재까지 교육위원장으로 수고하였다.

김종택목사는 1973년 4월에 우리교회에 부임하시어 장년부·노년부지도 등을 하시고 1979년과 금년에는 전도위원회위원장으로 수고하였다.

강봉선전도사는 1973년 3월에 부임하여 심방을 전온 온 교우의 가정을 심방하여 오셨다.

한편 당회는 정상우·김종택목사·강봉선전도사의 사임으로 생긴 각 업무분야의 공백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정상우목사 담당분은 미정)

- 전도위원장 : 유형철목사
- 제 3 지구심방 : 남성호강도사
- 국내전도담당 : 조준상전도사
- 장년부강의 : 김희보목사

김창인목사 귀국

지난 5월 20일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회 세계선교대회에 강사로 참가하고 동남아선교지역을 시찰하며 6월20일경 귀국예정이었던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교회내외와 국내외 어려운 사정을 감안, 일정을 단축하여 지난 6월 7일 귀국하였다.

제 2 성가대

성가발표회 가져

제 2 성가대는 오는 7월 6일 저녁 찬양예배시간에 특별성가발표회를 갖는다.

틈틈이 연습하여 준비한 이번의 발표는 비발디의 「그로리아」와 수록이며 지휘에 정국진집사, 반주에 조희영선생이 수고하신다

성경학원 지도에

최봉호전도사로 결정

당회는 성가부·성경학원 지도를 겸하고 있던 김하진목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기 위해 성경학원 지도를 최봉호전도사로 결정했다.

또한 그동안 제 5 지구 심방을 담당해 오신 이두란전도사는 신병으로 심방이 어렵게 돼 김은숙전도사로 전달케 했다.

수도 C·E 연합회총회

김구현집사, 회장에

지난 5월24일 오후 3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 수도C·E 연합회총회에서 본 교회 김구현집사(산업전도교육부교사·제직회 부회제)가 회장에 피선되었다.

9개 교회에서 50여명의 총대가 참석한 이날 총회는 우리 교회에서 김구현집사 외에 정금수씨(청년부 부회장)가 회록서기에 피선되었다.

성광문화사에서

도서 100권 기증

성광문화사(사장 : 이승하장로)에서는 교회에 성광문화사에서 출간한 기독교관계 도서 100권을 기증하였다. 이 도서는 월간 총현 편집실에서 이용하고 도서실에 비치해 온 교우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경학원

여름특별강좌 실시

성경학원은 여름을 맞아 학생들의 방학, 직장인의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한 특별강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헬라어, 영어성경, 엠마오성경연구 등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단기 코스이다. 각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헬라어

강사 : 박형용교수(총신대교수)

일시 : 1980. 7. 21~8. 2

(2주간) 매주 월화목

금토 오후 7~9시

2. 영어성경

강사 : 김양순선생(전 극동방송 영어성경강사)

일시 : 1980. 7. 21~8. 2

(2주간) 매주 월화목

목금토 오후 7~9시

3. 엠마오 성경연구

강사 : 신성종목사(병지대 교수·명지대교육실장)

일시 : 1980. 7. 21~26(1주간)

월화수목금토 오전9시

30분~오후 1시30분

제9회 평신도 지도자 훈련도

7월3~7일까지, 기도원에서

교역자 초청 훈련을 간 교회의 장로, 집사, 주교교사 등 평신도지도자를 교역자가 선정, 초청하여 제9회 농어촌교회 평신도지도자 초청훈련이 7월3~7일 까지 기도원에서 열리게 된다.

이는 평신도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열리며 개 교회로 돌아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훈련하게 되었다. 주로 우리 교회 교역자가 중심이 되어 담당 한다.

인사이드

1. 성가대

가. 임명

제일성가대 김성준 테너
제일성가대 이미란 소프라노
제일성가대 김선영 앨토
제일성가대 김미정 앨토
여성성가대 정옥영 소프라노

2. 주일학교

가. 임명

유년부 김지은(여) 임시교사
유년부 민경희(여) 임시교사
장년부 조정원(여) 정교사
노년부 박영식(남) 임시교사
산교부 정관호(남) 정교사
선교부 박두현(남) 부감

나. 퇴임

어새부 안정숙(여) 정교사
노년부 정영남(남) 정교사

*... 유년부는 5월30일 교사 철야 기도회로 모였고 이날 이양우 전도사의 교사특강도 들었다.

*... 초등부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충무국민학교에서 운동회를 가졌다.

또한 11일에는 서울운동장 앞으로 노방전도를 나갔다.

*... 중등부는 5월중 각반별로 친교회를 가졌고 5월4일에는 중등부 월간회보를 발간했다.

*... 고등부는 5월18일 일려회 총회는 갖고 회장에 성기주군, 부회장에 황애경양을 각각 선출했다.

*... 대학부는 5월5일 청년부, 성가부와 합동체육대회를 영희국민학교 교정에서 가졌는데 대학부가 종합우승

*... 청년부는 5월10일 경로회를

갖고 5월25일에는 「성락원」이라는 양로원을 방문

*... 장년새신자부는 5월18일 새신자부실에서 학생 신앙간증회를 가졌다.

*... 장년부는 5월 한달을 학생전체심방의 달로 정하고 심방하고 5월11일에는 이근신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성경의 권위」란 제목으로 특강을 들었다.

*... 산업전도교육부는 5월25일 유순자선생의 연구수업을 가졌고 저녁에는 헌신예배로 드렸다.

*... 선교부는 5월30일 새성전건축 현장에서 선교원신기도회를 가졌다.

*... 새가정부는 5월15~17일까지 가정의 달 특별강좌를 매일 저녁 7시30분부터 교회당에서 열었다.

각 종 통 계

1980. 6. 1 (매월 첫주기준)

토막소식

*... 교회는 구역권찰회실 서무에 박미숙양을, 당회장실 서무에 이영미양을 각각 신규 채용했다.

*... 남전도회는 지난 6월8일 월례회를 마치고 김종일씨(종교문제연구소 소장)를 강사로 모시고 「사이비종파의 현황」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들었다.

*... 산업전도회는 6월2일(월) 월례산업전도회 조찬기도회를 유년부실에서 가졌다.

*... 영아부는 5월5일 영아부실에서 반별 찬송가부르기 대회를 가졌다.

또한 5월 13일에는 교사기도회로 모였다.

*... 유치부는 5월10일 노년부위로 순서를 가졌고 5월 17일에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반별친교회를 가졌다. 교사40명, 학생230명, 학부모 135명이 참석하였다.

구 분			남	여	계	신	총새대수		3,523	
예	주일낮	I 부	182	381	563		급	교인	남	3,167
		II 부	398	970	1,368					
		III 부	392	782	1,174					
		IV 부	190	497	687					
배	주 일 저 녁		202	366	568	별	총수	여	4,775	
		삼 일 저 녁	97	286	383					
		어린이새신자부	21	20	41					
		영 아 부	117	98	215					
주	유 치 부		106	146	252	교	세례	남	1,775	
		유 년 부	198	170	368					
		초 등 부	177	192	369					
		장년새신자부	40	63	103					
일	중 등 부		129	147	276	원	교인	여	336	
		고 등 부	110	124	234					
		대 학 부	75	84	159					
		청 년 부	50	82	132					
학	장 년 부		24	286	310	현	교인	계	627	
		노 년 부	36	98	134					
		산 업 교 육 부	10	91	101					
		선 교 부	28	45	73					
교	새 가 정 부		16	16	32	황	원인	남	647	
		계	2,598	4,944	7,542					
		인	교인	계	1,406					
										계

6월 행사표

- 1 일 정기제직회 ·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임원회 · 재정위원회 · 산업전도회 월례회
- 6 일 전체 철야기도회 · 구역예배
- 8 일 남전도회 · 권사회 월례회
- 11회 여전도회 임원 철야기도회
- 15일 여전도회 · 재정위원회 · 선교실행위원회 월례회 · 대학부 헌신예배
- 18일 권사회 철야기도회
- 20일 구역예배
- 22일 교육위원회 · 권찰회 · 전도위원회 월례회 · 산업전도회 임원회
- 29일 해외복음선교회 월례회 및 헌신예배
- 31일 정기당회

* 편집하고나서 *

*..... 6 · 25의 민족비극이 있는 6월을 맞으며 「환난 가운데에서의 성도의 자세」란 특집을 마련하여 역사적으로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알아 보았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자세가 요구되는 바 본 특집을 통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 보며 그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원고를 써 준 이찬영목사님, 홍치모교수님, 김석원강도사님, 안석렬전도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주 애굽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이준교목사님께서 귀한 글을 보내주셨다. 애굽에서 가장 큰 교단인 애굽복음주의 교회의 총회인 나일 대회에 참가하고 그에 대한 소개등을 하여 주셔서 이집트의 교계와 그곳의 상황을 아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모두가 일독하고 우리의 선교지인 이집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한다.

* 1980년 월간총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 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중주

이형수

월 간 총 현

6 월호

제 8 권 제 6 호

통권 제 78 호

발행인/김창인

주 간/윤형철

편집인/조현명

편집부장/이형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1972년 4월30일 창간

1980년 6월29일 발행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36

260-3407 · 3408

택자도 버림 받을 수 있나?

구원이 상실 되지는 않아

(질문) / 택함받은 자가 타락하고 할 경우 버림 받을 수도 있는지요?



장로교에 몸 담고 있는 성도들이 가장 좋은 교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가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같은 질문을 종종 던져 봅니다. ① 당신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②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생활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③ 지금 당장에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당신의 생명이 끝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④ 최종적인 신앙의 승리를 자신합니까?

이같은 질문에 대해 첫번 질문에는 비교적 긍정을 하지만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질문에 대해 반수 내지는 삼분의 일 정도만 긍정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지식의 결여와 칼빈주의 교리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문제에 대해 율법적, 윤리적 노력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기만 하면, 얻어지는 선물이요, 그같은 성도들을 성령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풍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또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써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 그들은 마지막날 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 받을 것이다.” (Chapter XVIII Section I)라고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미완성이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타락한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두가 참으로 인정받는 성도라고는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후의 사건을 말씀하실 때 기름등불 준비한 5처녀와 그렇지 못한 5처녀, 주어진 직분에 충성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청지기와 그렇지 못한 청지기, 이웃을 사랑했던 양과 같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염소 같은 성도들, 지상에 있을 때는 사람을 보기에 구별이 안됐으나 주님앞에서는 백일천하에 드러납니다. 가룟유다나 발람선지자를 배운 나귀도 일시적으로 성령의 감동은 받았으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백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일시적으로 시험에 들어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즐거움은 없어져도 구원 그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51:12)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저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축복을 잃게 될 때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롬12:8, 시23:4) 스펄존 목사님께서 이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구원이란 항해선을 타고 항해 도중에 혹시 갑판에서 넘어지는 일은 있을찌라도 갑판 밖으로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

(참고성경구절)

사 43:1-3; 54:10; 엡32:40 마18:12-14
요3:16; 요6:39-40. 10:28. 17:2. 6. 11. 12.
롬 8:30, 11:29; 빌1:6
골전5:23 벰전1:4; 요일3:9
골24, 25.

이 승 근 목사 (정년부지도)

실로암
못가에서

나는 네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 : 10~13〉